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7월 30일 (제1212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흥분된 마음

나는 서울 성전이 이전할 장소를 찾기 위해 매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확인하고 협상하고 있다. 누군가는 “힘들어서 어떡해요?” 하지만, 전혀 피곤치 않다. 나는 되레 흥분한 마음이다. 왜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 부모님이랑 시장이라도 가면 괜히 흥분되지 않았는가. 혹시 뭐라도 하나 사주실까 해서다. 지금 내가 흥분한 까닭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9~11)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니 내가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떤 성전을 주실까, 어디쯤에 주실까.’ 기대가 크다. 학개서를 보자.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은 주의 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는 곧 중단되고 백성들은 낙망한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일으키셨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2:6~9).

나는 이 말씀이 서울성전 이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국의 보배가 우리에게 이르게 하사 넉넉히 성전에 입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곳은 지금의 성전보다 훨씬 좋은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면 달을 자가 없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예수중심교단을 향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에만 전력하라.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기대하시라.

생각 속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말라

24일 일기예보는 전남 쪽, 특히 장성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예보는 완전히 빗나갔다. 날씨를 위해 기도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법!

이시대 목사님의 개회예배로 시작된 제25회 전국 중교등부 연합수련회는 경배와 찬양, 미션서바이벌, 성령세례 등 굵직한 프로그램과 함께 저녁 시간에 진행된 총회장 목사님의 세미나로 그 정점을 찍었다.

목사님은 수련회 첫날, ‘사과 속 씨앗은

라. 오늘 꿈을 심고 상상력을 키워라. 반드시 10년, 15년 후에 그 열매를 보고 따게 될 것이다.

목회 초, 나는 철산리에서 사과 씨 하나를 심었다. 사과가 열렸다고 냉큼 따먹지 않았다. 오늘의 계란을 먹지 않고 내일의 암탉을 키운 것이다. 사과 씨를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열심히 심었더니, 15년 만에 열매가 맺혔고, 39년이 지난 지금은 73개국에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고 있다.

너희도 마음 판에 꿈을 심어야 한다. 너

작품이다.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지 오늘 결단하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대한 결단력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내가 먼저 잘 돼야 한다. 누구는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이기주의 없이 이타주의는 없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지식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머리에 있고, 꾸어주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초로 생각이 멋지고, 아



제25회 전국 중교등부 연합수련회(2023년 7월 24일~26일, 장성 에루살렘기도원)

헤아려도 씨앗 속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는 제목으로 ‘생각 속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혼신을 다해 전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사과를 먹고, 씨앗을 그냥 버린다. 그러나 지식 있는 자는 씨앗 속에 사과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씨를 부지런히 심는다. 사과 속 씨앗은 헤아려도 씨앗 속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상상력이 이와 같은 것, 상상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

다윗이 15세에 원대한 꿈을 심어 15년만인 30세에 왕이 됐고, 요셉이 17세에 꿈을 심어 13년만인 30세에 애굽 전국을 치리하는 총리가 되었다. 다 너희 또래다. 너희도 늦지 않았다. 오늘 사과 씨를 심어

희가 꿈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라. 꿈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다. 믿음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다. 상상력의 전원을 끄지만 말라.

나는 너희들을 각 분야에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자신이 있고,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 작심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결단한다면 반드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내가 경험자다. 경험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도 상상하신 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멋진 예술가이시다. 나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은 내 생각대로 나오더라. 인생은 운명이 아니다. 내 생각이 만드는 내

름답고, 커야 한다. 그러니 무한한 꿈을 가지고 상상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실 것이다.”

또한 목사님은 남의 말에 춤추지 말고 자기 것을 찾고, 그것에 충실하며, 반복하여 그 분야에 달인이 되라고 하셨다. 세계는 이제 전문화시대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하면 어디서나 환영받고 대접받는 자가 되리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를 토하듯 혼신을 다하시며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길을 밝히시고 후원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보다 행복한 자가 또 있을까!

중교등부교사 윤예녹 생도

OH, HAPPY DAY!

JESUS CENTERED INTERNATIONAL UNITY

서울성전 이전 40일 작정기도 선포

7월 12일 ~ 8월 20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14:10~31)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지만 열매가 실하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그러나 저는 달리 말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지만, 그 열매는 실하다.’

사람들은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 역시 저는 달리 표현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No. 기대가 크면 영광도 큰 법이지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 속에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마리의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긍정이란 놈에게만 먹이를 줍니다. 긍정이 부정을 눌러버려 부정이 아예 힘을 못 쓰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만사를 긍정으로 보게 되고, 긍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삶에 긍정의 열매만 열리지요. 생각이 결과이니까요(렘6:19).

도토리 씨 안에는 참나무가 들어있다

요즘 서울교회 성전 이전 일로 굉장히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곧 8월인데 어찌냐?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 대신 환희, 근심 대신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합니다. 솔직히 시간은 다가오고 아직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압박감이 왜 없겠습니까만, 저는 의도적으로 부정을 누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호와이레,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사 생각대로 된다는 걸 이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렘6:19).

39년 전, 철산리 지하에서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의자 500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곳이 꼭 찬다는 생각으로 바라봤는데 9개월이 되니 500석이 차고 넘칩니다. 또 성도가 몇 명 안 될 때부터 ‘세상은 내 교구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지요. 주제를 알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때가 되니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힘이지요, 파괴력입니다.

그런데 굳이 부정에게 먹이를 몰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장애물이라 여겨 주저앉고, 불평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뻑 하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것을 밟고 뛰면 멀리 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나 불행, 성공과 실패는 상황이나 여건,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

닙니다. 생각이 좌우합니다. 자동차가 좌측, 우측, 아니면 후진하는 것이 운전자 가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달려있듯, 인생의 운전자인 내가 생각을 어느 쪽으로 모느냐에 따라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요즘 날이 엄청나게 덥지요? 그런데 아무리 찜통더위라고 해도 방안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놓으면 시원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악조건 상황이라고 해도 내 안의 생각만 잘 갖추고 있으면 흔들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고 말씀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하셨고, 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즉”(잠23:7)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만 잡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자고로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고, 관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자, 이제 훈련을 해볼까요?

농부는 땅에 거름부터 주지 않습니다. 땅을 먼저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돌도 걸러내고, 잡초도 뿌리째 말끔히 뽑아내어 옥토로 만듭니다. 인생 농사의 첫 작업도 지경을 뒤엎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좌절감, 악하고 나쁜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래전 화분에서 약 3년 정도 자란 영산홍을 화단에 옮겨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옮긴 지 꽤 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니 이게 그전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여 잘 아는 분재원장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분 하는 말이 필시 뿌리가 돌돌 말려있을 테니 그 뿌리 끝을 잘라주라는 겁니다. 정말 땅을 파보니 뿌리가 여전히 화분 속 모양대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일론 원장님 말대로 그 뿌리 끝을 잘라주고 다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 쑥쑥 자라고 꽃도 활짝 피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썩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내야 합니다. 돌돌 말려 있는 고정관념도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발전없이 그 모양 그대로 삽니다. 성장발전도 당연히 없고, 인생의 꽃도 피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아무 씨앗이나 심지 않습니다. 다. 씨앗을 골라 심습니다. 인생에도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건강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이대로 납니다. 분명히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갈6:7).

제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매번 말하는 것은, 제가 늙어서 한 말 되하고 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또 그들이 저의 자녀이고, 손자이기에 잘되라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젊은이 중에 ‘금수저’, ‘흙수저’ 운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을 돌렸을 뿐이지 팔자타령 하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구만리 같은 인생을 살 자들이 팔자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팔자가 발목을 딱 잡고 있는데요.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습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잡초, 가라지를 뿌리고 키우는 건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도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예수님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마13: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도 생각이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어떻게든 가라지를 나게 합니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틀에 박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요13:2). 결과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고로 좋은 씨를 뿌렸어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제초제요, 제초기입니다.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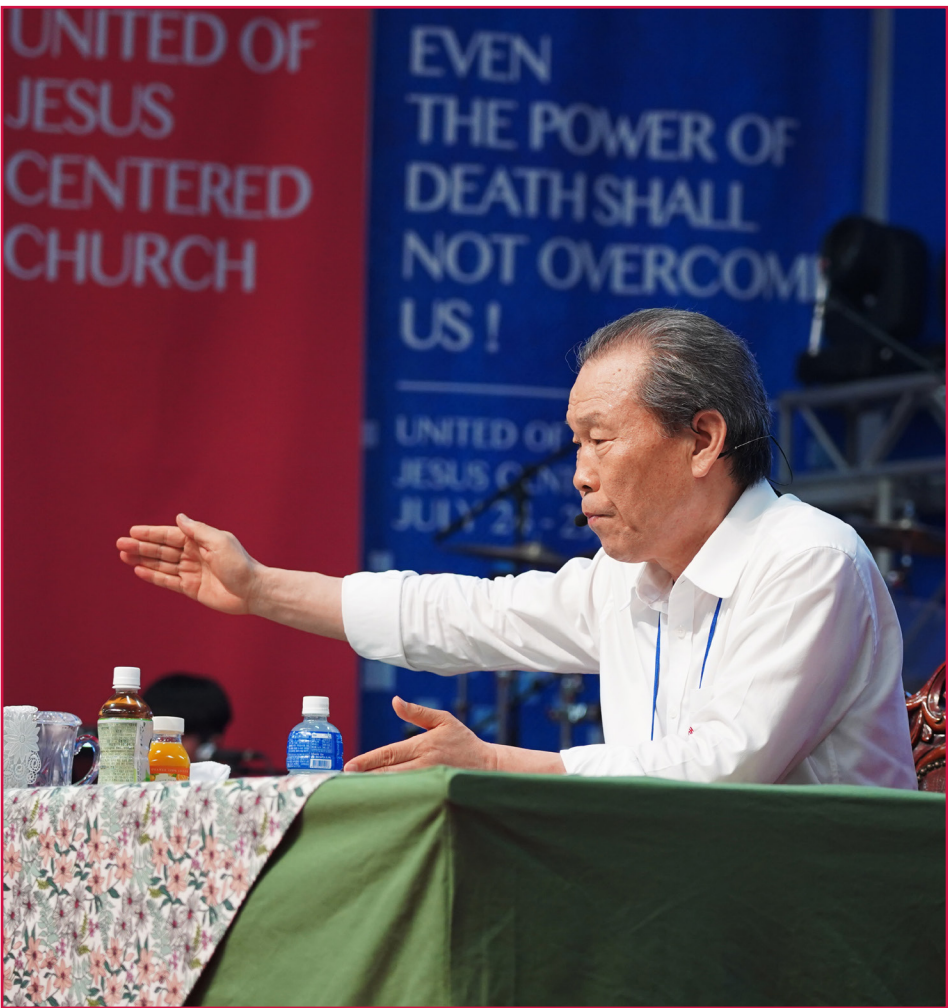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이 말에는 다분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요14:12)고 하시며,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꾼의 자녀인 이초석 목사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에서는 결코 사과를 딸 수 없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큰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선한 생각으로 바꾸면 세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지켜주는 이가 있지만, 생각은 내가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내가 ‘고양이를 그리겠다’ 생각해야 고양이를 그리는 겁니다. 곧 생각이 밑그림이요, 설계도면인 셈입니다. 밑그림대로 그림이 나오고, 설계대로 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막5:28)는 마가복음 5장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생각이, ‘중풍 병자인 친구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네 명의 친구들 생각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명심할 것은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25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7월 24~26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자!



:: 일본에서 온 편지 ::

:: 귀를 기울이세요 ::

진품(眞品), 명품(名品) 그리스도인의 삶

많은 이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염려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며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우리 삶을 교묘하게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일 겁니다. 무엇보다 염려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염려는 상황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에 문제가 없거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6:20).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낙심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봅시다. 우리 인생에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감사로 찾아봅시다. 감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을 신속하게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제품 중에는 진품, 유사품과 불량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중에도 진품, 유사품, 불량품, 모조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유일한 표가 따르는 삶의 열매입니다. 세상이 분간하기 힘들 만큼 일급 모조품일지라도 그 삶의 열매를 보면 환히 드러납니다. 거둔 진품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모조품, 불량품은 없습니다. 허영과 교만, 욕심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열매 맺는 진품의 삶을 빼앗아갑니다.

‘물숨’은 해녀들이 물속에서 쉬는 숨, 곧 욕망이자 죽음을 암시하는 말로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숨을 넘어서는 순간 바다는 무덤이 되어버림을 뜻한다고 합니다. 숨만큼만 따면 되는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늘 숨을 헐떡이며 삽니다. 더 좋은 것, 더 위엿것을 생각하며 서두르다 보면 자기 숨을 잃기 마련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며 살아가면 인생의 바다도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멈추어 서서 허영심과 교만, 욕심으로 헐떡이던 숨을 다스립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약1:15).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마6:31).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기도의 바로미터

연초부터 나에게 건강시계가 갑자기 생겼다. 이 시계는 운동량, 수면의 질, 혈압 상태, 피로도 등을 늘 체크해주었다. 또한 가벼운 운동, 강한 운동, 걷기, 뛰기 등을 확인하고 내가 몸이 아픈 곳은 없는지, 나의 식단은 건강한지, 나의 홈트레이닝 자세는 바른지, 몸은 빼뺄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체크해주었다. 어느 날은 시계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몸의 피로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음을 알리고 경고의 신호를 보내준다. 무엇보다 이 시계는 운동을 싫어하는 나를 걷게 만들고 운동하게 만들었다. 건강시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시계처럼 체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았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공예배에 얼마나 잘 참석하고 있나, 신앙의 바로미터 체크기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았다.

그런 중 우리 교단에는 최근 기도의 바로미터, 신앙의 바로미터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서울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작정기도’이다. 기도처마다, 교육관마다 주의 종들은 물론 성도들 모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서울 성전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보냈어도 오로지 서울 성전을 위해 성도들은 기도처로, 교육관으로 달려간다. 마치 오늘 하루 건강을 체크해주는 시계처럼, 성도들은 기도의 바로미터, ‘서울 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작정기도’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기도의 처소로 향한다. 지난주,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앞두고 서울의 각 기도처를 여러 군데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모든 기도처에서 기도 시간만 되면 성도들이 모여들어 우리 교회를 위해, 총회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아름다웠다. 삼복더위에도 기도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처에 도착하여 잠시 선풍기를 켜서던 한 권사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내 기도의 바로미터, ‘서울 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작정기도’는 계속된다. 우리 모두 기도의 처소로 향하자!

송헌혜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2023 하계 산상집회

8월 14일(월)~17일(목), 8월 21일(월)~24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Good News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2000년 이후로는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잘 죽는 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웰다잉(well-dying)이란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

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되며, 2060년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웰다잉이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인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명상을 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데 편안하게 죽더라도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나라’에 가길 원합니다. 나뉘는 생각대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만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웰빙이고 웰다잉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공동체의 힘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좇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모이는 것은 함께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청년부는 최근 드라마에배부터 체육대회, 수련회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무형에서 유형의 것을 만들어 냅니다. 준비하는 사람, 참석한 사람, 봉사하는 사람 등,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의 웅장한 감동도, 열띤 즐거움도 함께이기에 느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기쁨을 나누며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의 최대치는 자신의 신앙만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할 때 개인과 공동체는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의 지평을 넓힐 수 있습니다. 남을 포용하는 만큼 자신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집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뚫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역할을 합

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사흘이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공동체가 더욱 결속을 다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하기에 더욱 의미가 큼니다.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젊은이들이 특별한 은혜를 만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전소희

so2eej@naver.com